

- 1. 영생대도의 실천
- 2. 영생학의 보급
- 3. 영생문화의 창달

주님을 초초로 바라보고 고도로 사모하라. 나라는 존재의식을 초초로 죽이고 짓이겨라. 형제의 죄를 내 죄로 여겨라. 인류는 한몸 누구든지 내몸처럼 여겨라.

## 제2의 세월호 참사를 막으려면 ‘누구든지 내 몸처럼 여기는 운동’ 전 세계적으로 전개되어야



세월호가 침몰하고 있다

은 국민을 슬픔에 빠뜨린 세월호 참사로 인해 우리 사회 여러 곳에서 참회와 회개의 바람이 불고 있다. 희생자 합동 분향소를 찾은 조문객이 5월 8일 현재 13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한다. 어른들 말을 잘 듣는 착한 순종형 아이들이 죽어간 끔찍한 참사에서 많은 어른들이 자책하고 미안해하고 있다. 개인이나 단체나 모두 자신들의 이익의 극대화에만 눈이 멀어 있고,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회생과 사랑에는 무관심하다. 국민의 안전은 뒷전이고 보신주의와 뒷사람 눈치보기에 급급한 공무원들은 죽어가는 아이들을 살리는 것보다 대통령과 뒷사람에 대한 보고에만 매달렸다.

사람들이 죽는 일이 생긴다고 하였다. 세월호 참사를 통하여 승리제단 신도들은 각자가 자유율법을 어떻게 지키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승리제단의 의인들이 세상에 가득 찬 악령을 정화시키고 있다

승리제단은 일개 종교단체가 아니라 이 우주의 영적 흐름을 주도하는 곳이다.

다. 승리제단 신도들의 영적 상태가 곧 바로 이 세상의 일로 반영된다. 왜 그런가?

사람은 누구나 생각하는 대로 그 생각의 물질이 몸에서 방출된다. 음란한 생각을 하면 음란의 물질이 방출되고, 도독질할 생각을 하면 도독질의 물질이 방출된다. 이 세상에는 사람들로 부터 방출된 생각의 물질로 꽉 차 있다. 그 생각의 물질이 주파수가 맞는 사람들과 만나게 된다.

승리제단은 일개 신도를 키우는 곳이 아니라 의인을 양육하는 곳이다. 의인이라 이 세상 인류를 살리는 존재인데 조희성 구세주의 말씀에 따르면 의인 한 명이 1350명을 구원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런데 승리제단에 나오는 의인 후보자들이 잘 이겨나가다가 아차 한 번 실수하여 떨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죽는 일이 발생한다. 승리제단에 있는 의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내뿜은 악령을 소멸하는 영적 큰일을 하고 있는데 그 의인들이 잘못하여 떨어지면 그 악령을 정화하는 역할이 적어짐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죽는 일이 생기는 것이다.

누구든지 내 몸처럼 여기는 운동을 전 세계적으로 확장시켜야 한다

승리제단의 의인들은 ‘누구든지 내 몸처럼 여겨라’라는 자유율법을 실천하는 사람들이다. 인류는 모두 다 한 몸이므로 누구든지 내 몸처럼 여기라는 것이다. 상대의 죄가 내 죄요, 상대의 잘못이 내 잘못이다. 모두 하나이다.

세월호 참사의 책임은 일차적으로 선장을 비롯한 참해진 해운 관련자들에게 있지만 인류 모두 도덕적 영적 책임이 없는 게 아니다. 인류 개개인이 내뿜은 악령이 모두 관계되어 있다. 특히 승리제단 신도들에게는 더욱 큰 책임이 있다.

따라서 우리 승리제단 신도 한 명 한 명은 인류의 미래가 각자의 어깨에 달려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자유율법 실천 운동에 더욱 매진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제2의 세월호 참사는 계속 일어날 것이다.

또한 대한민국여러분들도 ‘누구든지 내 몸처럼’ 여기는 자유율법 실천 운동에 빨리 동참하여 사람을 죽이는 악령이 이 세상에 더 이상 발붙일 수 없게끔 만드는 데 앞장서야 죽지 않는 영생의 낙원이 빨리 이루어질 것이다. 전국민의 동참을 호소한다.\*

### 본부제단 4월 지역 활동

4지역 1등 차지,  
전도 점수에서 2등보다 18점 이상 앞서

본부제단 4월, 6개 지역 활동 성적이 발표되었다. 전도 및 출석 점수 등 15개 항목으로 나누어진 평가에서 4지역이 1등을 차지하였다. 특히 4지역은 타 지역보다 전도 점수에서 앞섰다. 윤봉수 대표는 “수상한 각 지역 책임자 등 여러분들이 4월 한 달 동안 열심히 하나님의 일에 충성한 결과가 나타난 것이다. 다음 달에도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격려했다.

지역 1등 4지역(지역장 윤봉수, 지회장 이영애), 지역 2등 5지역(지역장 박철수, 지회장 신순이), 지역 3등 6지역(지역장 김주호, 지회장 박정삼).



4지역 이영애 권사가 1등 상을 받았다

구역 1등 38구역 김정순, 구역 2등 45구역 신순이, 구역 3등 53구역 석선자.  
개인 1등 신순이, 개인 2등 석선자, 개인 3등 김정순.\*

### 금주의 말씀 요절

전 세계를 향하여 선포한다(34)

#### “인류의 어버이이신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하나님께서 6천 년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곤두박질을 치시면서 통곡을 하셨 습니다. 당신 자식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시면, 죽어갈 때마다 통곡을 하시고, 그 하느님 입장은 말할 수 없이 비통한 입장이었던 것입니다. 눈물 없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입장이었던 것입니다.

이긴자가 아니면 얼마나 우시고, 얼마나 애를 쓰시고, 기를 쓰신 것을 알 자가 없 는 것입니다. ‘엄마’의 심정은 어느 누구 도 당신의 지체처럼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시며 우셨던 ‘하느님’ 엄마였던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온 천하 마귀가 집중공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영적 엄마’와 자식 사이를 떼어놓을 자 없습니다. 이 사람은 여러분의 생명을 붙잡아 주는 ‘엄마’입니다. 시간 시간 여러분들을 죽이려고 마귀가 공격하지만 늘 이 ‘영적 엄마’가 분신으로 지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버이님을 기해서 다 같이 새 출발할 것을 결의해야 되며, ‘엄마’처럼 ‘하느님’처럼 똑같이 자유율법을 지키며 사는 ‘하느님’이 되어 주기를 ‘엄마’는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 은혜를 간직하라

은혜를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자가 이긴자가 된다

구도(求道)는 마음을 바꾸는 것이다. 죄악에 가득 찬 더러운 마음을 깨끗한 마음으로 변화시켜야 도를 닦았다고 할 수 있다. 어떤 종교에서는 무애행(無礙行) 즉 거리낌이 없이 기행(奇行)을 하는 사람을 굉장한 도인(道人)이라고 착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잘못이다.

마음이란 피에서 생기므로 마음이 깨끗해지면 피가 맑아진다. 열반경에서는 도를 성취한 경지에 따라 피가 바뀐 상태를 짚어 비유해서 적어 놨다. 수다원이나 사다환이 일부분의 번뇌를 끊은 불성은 찻과 같고, 아나한(緣覺)의 불성은 타락(酪)과 같고, 아라한은 생소(生蘇)와 같고, 벽지불로부터 10주 보살까지는 숙소(熟蘇)와 같고, 여래의 불성은 제호(醍醐)와 같다(열반경 32권, 이운허, 779쪽, 동국역경원 간)고 하였다.

승리제단에 나오면 피가 바뀐다. 더러운 죄악의 피가 빠져나가고 깨끗한 피가 생긴다. 구세주로부터 감로(甘露)를 받았기 때문이다. 감로로 씻은 마음에는 기쁨과 감사함이 자리한다.

승리제단에 나와서 영생대도(永生大道)를 닦는 구도자들이 구세주

부터 받은바 감로의 은혜를 잘 간직 하여야 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다. 걸핏하면 쏟아버린다. 왜 그럴까? 치열한 구도의 과정이 없이 너무 쉽게 공짜로 받았기 때문이다. 구세주께서 값없이 베풀어주시는 감로의 은혜는 단 하루도 지키지 못하고 쏟아 버린 다.

우리는 구세주로부터 무수히 의인이 되었다는 축복을 받았다. 의인이라 죄가 없는 존재다. 그 축복을 받고 그 축복의 은혜를 쏟지 않으면 죄인이 되지 않을 터인데 대개의 신도들이 축복 후 바로 죄를 짓고 죄인이 되어버린다.

구세주께서 보광하신 후 많은 승리제단 식구들이 과연 의인의 자리에 있는가? 감로의 은혜를 다 쏟아버리고 죄인이 되었다면 이제부터 다시 의인이 되기 위하여 새 출발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은혜를 받는 것도 어렵지만 은혜를 지키는 것은 더욱 어렵다.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상심하는 삶을 살지 않는 한 은혜는 지켜지지 않을 것이다. 은혜를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자가 이긴자가 된다는 말씀을 명심하자.\*

### 당신을 영생의 세계로 안내하는 승리신문

성금계좌 : 우체국 103747 - 02 - 134421 예금주 : 이승우

## 승리제단에서는 諸宗教의 경전에 예언되어 있는

제종교

## 三神一體 一人出 된 眞人の 증표인 甘露가 항상 내립니다

삼신일체 일인출

진인

감로



본부제단 3월 시상식(4.8) 때 내린 이슬성신/ 이승우 승사 촬영



본부제단 3월 시상식(4.8) 때 내린 이슬성신/ 이승우 승사 촬영



본부제단 3월 시상식(4.8) 때 내린 이슬성신/ 이승우 승사 촬영

이슬성신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호세아 14:5)이라 빛의 형상(요한 1장)으로 나타난다. 구세주를 진심으로 따르는 승리제단 신도들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구세주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기 때문에 이슬성신이 카메라에 잡힌다. 영안이 열린 사람은 이슬성신을 볼 수 있지만 죄인의 눈에는 안 보인다. 대신 죄가 없는 카메라 렌즈에는 찍히는 것이다.